

<인사과장 포박사건>

20201330 박범진 / 2021-10-20

>>>인서트 (기사 사진 몽타주)

- ‘(주)럭키기계. 구조조정 단계 밝아.. “회사 존폐 위기.. 정당한 행위..” .’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인다.
- ‘(주)럭키기계 노동자들 투쟁의사 밝혀... “명백한 부당하고...” ’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인다. 사진에는 노동자들이 빨간 머리띠와 조끼를 입고 단상에 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럭키기계 사태 132일.. 노-사 갈등고조. “살기 위해 뭐라도 할 것..” ’ 빨간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죽도를 든 채 험상궂은 표정으로 선두에 서고 있는 소범(28)의 모습이 보인다.

S#1 기윤의 사무실 / N

소범의 사진이 보인다. 마치 현상금 포스터처럼 생긴 종이다. 그 종이에에는 ‘박소범(28)’의 사진과 함께 빨간 글씨로 ‘노조 행동대장’ 이라고 적혀있다. 종이에 적힌 글씨를 그대로 읽는 기윤.

기윤 V.O

강성 노조 행동대장 박소범.
극악한 행동들을 자행하여 사내 분위기를 어지럽힘.
주의를 요함.

탁 파일을 닫는 기윤의 손. 표지에는 <노동조합 관련 서류>라는 제목이 적혀있다. 정면으로 보이던 파일을 내리자 그 앞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소범의 모습이 정면으로 보인다. 빨간 조끼와 머리띠를 매고 있는 소범. 다리를 곧 채 한 손은 허리 뒤로 뒷짐 진 채 앉아있는 소범의 모습. 옆에는 죽도가 하나 놓여있다.

소범

다른거 없습니다. 우리 동료들 복직 시켜주십시오.
오래 투쟁했습니다.

기윤 V.O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가?

소범

공적인 자립니다. 말을 가려 해주세요.

구석에 위치한 기윤의 사무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기윤의 명패. ‘인사과장 박기윤’ 이 보인다.

기윤

지랄... 아직 몇 명 더 남았구요.
오늘 안에 다 하고 처리해야됩니다.

소범

..끝까지 그러실겁니까..

짧은 한숨을 내쉬는 소범.

소범

오늘 기억하십시오. 똑똑히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소범이 천천히 자신의 옆에 있던 죽도를 들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순간 기윤의 폰이 울린다. 소파에 앉아있는 기윤의 뒷모습이 보인다. 기윤은 폰을 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소범을 슬쩍슬쩍 쳐다본다. 기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옷 여기저기를 뒤져본다. 그러더니 머뭇거리며 라이터 하나를 꺼내는 기윤. 라이터의 불을 켜 소범 앞으로 내민다.

기윤

자.

당황하는 소범의 얼굴.

기윤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오늘인지 몰랐네..

(정색하며)

초 안 부나?

소범은 잠시 기윤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라이터로 다가가 후 불어 불을 끈다. 둘 사이에는 잠시 동안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 슬며시 다시 자리에 앉는 소범. 폰에는 ‘아들 생일’ 이라는 알람이 지잉지잉 울리고 있다. 핸드폰의 알람이 꺼지고, 배경화면에 소범과 기윤의 가족사진이 뜬다. 그 사이로 타이틀이 등장한다.

TITLE - <인사과장 포박사건>

S#2 기윤의 사무실 / N

(문자 알람소리) 초코파이에 불을 붙인 담배꽁초 하나가 마치 생일 케이크 초처럼 끼워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뒤에선 기운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함께 들리는 시계초침 소리. 소범의 뚱한 표정이 보인다. 벽면에 붙어있는 큼지막한 액자가 보인다. 그 안에는 ‘선진 경영. 우리가 만듭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럭키기계’의 사장의 기사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액자에 놓여져 걸려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장의 사진.

기운 V.O

오지랴운 오지랴운.. 입 닫고 가만히나 있으면 되지..
으유.. 무식하기롱...

기운의 말을 꼭 참으며 듣던 소범. 짜증난다는 표정이다. 기운은 넥타이까지 푼 채 소파에 앉아있다. 소범이 뚱한 표정으로 참고있는 듯 듣고 있다가 결국 한마디 한다. (문자 알람소리)

소범

저 잔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기운

(무시하며)

집에는 언제 들어올거고.

소범

투쟁 끝나기 전엔 집에 안 들어갑니다.

기운

집 나가서는 코빼기도 안보이더니..

지 필요할때만 얼굴 비치제.

소범

(스으 몸을 앞으로 내밀며 농담 반 진담 반 식으로)

동료들 복직시켜주면 집에 들어갈게요.

소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문지를 들어올려 소범의 머리를 연신 때리는 기운. 그러고도 화가 안풀렸는지 한 대를 더 때리고 책상에 신문지를 던진다. 순간 울리는 기운의 폰. (문자 알람소리)

기운

에잇 시파-

기운은 테이블에 올려진 자신의 폰을 들어 확인한다. 부재중 문자가 여럿 있다. 사장의 문

자다. ‘아직 처리 안됐어요 박과장?’ . 사장의 문자를 보던 기윤은 한숨을 쉬며 답장을 날린다. ‘처리가 좀 늦습니다 사장님.’ 문자를 보내곤 폰을 다시 탁 책상에 두는 기윤. 이마를 잡는다.

기윤

(몸을 앞으로 내밀며 설득하는 투로)

하... 소범아. 이제 그만하자. 동료들 다 잘렸어도
너 하나는 살아야지 않겠나.
남는게 이기는기라. 넌 아직 젊다.

소범

나 생각하면 우리 요구나 들어줘요.

기윤

(책상에 올려진 결제 서류를 가리키며)

어차피 사람들 오늘 다 잘린다.
근데 내 너 하나는 살릴 수 있다.

소범

어떻게요.

나 하나 지킬 힘은 있어요? 아니, 나한테 관심은 있어요?
(뜸들이다 던지듯이)...자식 생일 하나 기억 못하는 사람이...

기윤

(당황해서는 오히려 성질)

이.. 쉼끼가 근데.. 그럼 나가 새까-

소범

(어이없다는 듯)

허. 아빠 잔소리만 하루종일 들었거든요.
나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내가 가오가 있지 씨..
그냥 나가면 우리 동료들 얼굴 어떻게 봅니까? 큰소리 땡땡치고 왔는데.

기윤

...내 얼굴은 안볼끼가?

소범

(징징대듯)

아 사장한테 말만 한번 해줘요-
그러라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럴 짬도 안되요?

기윤

(성을 내며)

뭐 안다고 나대노 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범. 죽도가 떨어지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온다.

소범

(더듬거리며)

아이 진짜-! 내가.. 아빠니까 진짜.. 참았는데

..나 우리 동료들 살려야돼요.

소범의 얼굴을 아무 말 없이 정색한 채 뚫어져라 쳐다보는 기윤. 그때 기윤의 폰으로 사장의 문자가 온다. ‘처리하세요 박과장.’ 기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을 연다. 쓰레기들을 파헤치는 기윤. 그러곤 그 안에서 꾸깃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소범에게 던진다.

기윤

(삿대질하며)

...신념도 제대로 가져라..

후레자속...

책상 위에 올려진 흰 봉투를 천천히 들어 열어보는 소범. 소범이 놀란 눈으로 기윤을 바라본다. 기윤은 자신의 책상으로 가 결재 서류를 연다 ‘구조조정 결제 서류’ 그 모습을 소범이 보고 있다. 기윤이 사인을 하려는 찰나 순간 울리는 기윤의 전화. 사장의 전화다. 폰을 들고 소범을 등진 채 구석 창가를 보며 사장의 전화를 받는 기윤.

기윤

(급신대며)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네.

아유..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십쇼 사장님. 다 되갑니다.

부들부들 손을 떨며 여전히 종이를 보고 있는 소범. 성난 눈으로 전화받고 있는 기윤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신의 빨간 머리띠를 푸는 소범. 소범의 뒷 바짓춤에 끼워져있는 밧줄이 보인다.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 소범의 해고예고 통지서다. 전화를 받고 있는 기윤의 옆모습이 보인다.

기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기윤이 전화를 끊자마자 뒤에서 빨간 머리띠로 기윤의 재갈을 물리는 소범. 둘이 프레임 아웃되고, 우당탕 소리가 들려온다.

S#3 기윤의 사무실 / 사무실 밖 교차 / N

[사무실 안] 재갈을 물고 밧줄로 포박당한 채 바닥에 꿇고 있는 기윤의 모습이 보인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소범. 손톱을 깨물며 식은 땀만 계속 흘리고 있다. 책상에 올라가 있던 결재 서류를 꼭 껴안고 있다.

소범

아..아빠.. 좀만 참아봐..
(뭔가 생각하는 듯 소곤소곤)
자.. 우선.. 뭐부터 해야되지..?

가쁜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던 소범은 여기저기를 쭈서보기 시작한다. (문자 알람소리) 기윤이 자신의 앞에 널부러져있는 폰을 확인한다. 눈이 커지는 기윤. 벽면에 붙은 사장의 기사 액자가 보인다.

사장 V.O

지금 박과장 사무실로 가죠. 결재 서류 준비해놓으세요.

[사무실 밖] 사장의 걸어가는 구둣발이 보인다.

[사무실 안]

소범

(우왕좌왕 하며)
어유 씨 진짜..

소범을 보며 몸부림 치는 기윤. 소리도 질러보지만 재갈을 물린 탓에 웅얼거리기만 한다. 여전히 책상만 만지고 있는 소범은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져본다. 전화도 건드려보고 CCTV도 만져본다. CCTV 화면으로 소범의 모습이 보인다. 몸부림 치는 기윤 옆을 지나다 기윤을 폰을 차고 지나가버리는 소범. 소범은 그것도 모른 채 여기저기를 방황한다. 울상 지으며 소범만 바라보는 기윤.

[사무실 밖] 걸어가는 사장의 뒷모습이 보인다. 옆으로 기계가 움직이는 공장 안이 보인다.

[사무실 안] 여전히 시끄럽게 몸부림 치는 기윤. 소범은 문득 기윤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가 흰 봉투를 하나 발견한다. '사직서'. 그 밑에는 한 장의 종이가 끼워져있다. 기윤의 해고 예고통지서다. 뒤에서 기윤의 웅얼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놀란 소범이 기윤을 바라본다.

[사무실 밖] 철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사장의 구둣발이 보인다.

[사무실 안] 기윤에게 다가가 기윤의 재갈을 내리는 소범. 켈룩켈룩 거리는 기윤.

소범

아빠.. 이거..

기윤

(소범의 말을 끊으며)

사장...사장님 오신대..

소범의 눈이 커진다. 순간 **‘철크’** 하는 소리가 소범의 등 뒤로 들려온다. 그 소리에 동시에 문쪽을 바라보는 소범과 기윤. 문이 열리고, 사장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다. **(빠른 Zoom in)** 상황을 보게된 사장. 그러다 소범의 얼굴을 목격하고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현상금 포스터같이 생긴 종이를 들어올린다. 종이 속 소범의 사진과 현장에 있는 소범의 얼굴을 비교해보는 사장. 사장의 눈이 보인다. 둘을 번갈아 보던 사장은 뭔가를 생각하는 듯 눈을 굴린다. 살짝 올라가는 사장의 입꼬리. 그러고는 정색하며 정면을 쳐다본다.

사장

개새끼가...

저벅저벅 둘을 향해 걸어오는 사장. 사장은 당황하는 소범을 지나쳐 기윤의 뺨을 후려갈긴다. 놀라는 소범.

사장

일처리 하나 **(퍽)** 똑바로 못하고..

그거 하나 고르는게 그렇게 어려워?

기윤

제가.. 제가 나가려고.. **(퍽)**

손에 든 기윤의 해고 예고통지서를 바라보는 소범. 책상 위에 올려져있는 소범의 해고 예고통지서도 함께 보인다. 기윤의 입가엔 피가 흐른다. 그 모습을 보며 재빨리 달려가 구타당하는 기윤을 감싸는 소범. 사장이 주먹을 멈추고 둘을 내려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덜덜 떨고 있는 소범을 바라보고 있다. 멍하니 무언가를 생각하던 소범은 가쁜 숨을 내쉬며 사장을 올려다본다.

소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둘을 가만 바라보는 사장. 기윤은 입에 피를 문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다. 정적이 흐른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허리를 펴고 옷매무새를 만지는 사장. 천장에 설치된 CCTV를 바라본

다.

>>> **인서트**

CCTV를 바라보는 사장의 모습이 보인다. 몇 번의 키보드 소리와 함께 영상이 삭제된다.

>>> **다시. 사무실**

들을 내려다보던 사장은 저벅저벅 걸어 문 쪽으로 간다. 문을 열다 뒤를 돌아보는 사장.

사장

(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수고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둘만 남은 사무실. 사무실 벽에 기댄 채 땅바닥에 앉아있는 둘은 잠깐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기운이 떨어지는 손으로 품에서 담배를 꺼내 자신의 입에 문다. 그러곤 또 하나를 꺼내 소범에게 건넨다. 천천히 담배를 건네받는 소범.

소범

..아직.. 젊으니까 뭐..

담배를 입에 무는 소범. 앉아있는 둘 위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장의 기사 사진 액자가 걸려있는 것이 같이 보인다.

FIN.